

9월28일(월)/누가복음 14:1-6

제목: 남의 집 아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다.(1절) 그리고 예수님에게 울무를 씌우려고 환자 한 사람도 데려다 놓았다.(2절) 예수가 이 병을 고친다면 대단히 기쁜 일이었다. 예수를 비난할 거리가 생겼으니 말이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셨다.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5절)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6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이 진리인 줄 믿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줄 알았다. 그러나 자기들의 신념이 깨어지게 된 계기는 자기들에게 그 규례를 적용할 기회를 가졌을 때였다. “안식일에 당신 자식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본 것이다. 사람은 남에 대해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비슷하다. 그 집 일이 우리 집 일이 될 수 있고 그 아이 일이 우리 아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장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

9월29일(화)/누가복음 14:7-11

제목: 모두다 아담의 후손

예수님은 잔치 집에서 높은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셨다.(8-11절)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끌어내리는 자가 있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세워주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과 허세를 부리며 이 세상에서 ‘멋진 신사숙녀’로 살아가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절망하고 고통 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은 예수님의 ‘의’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절망을 맛보고 고통 받는 자의 것이다. 이 절망과 좌절을 미화하고 꾸미는 신사숙녀에게는 천국 없다. 학식과 교양과 허세로 교묘히 자신을 위장하여 만인들 앞에서 항상 ‘멋진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멋진 신사숙녀는 없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오직 있다면 말씀 앞에서 절망하는 자만이 있다.

9월30일(수)/누가복음 14:12-14

제목: 남 모르게 뛰어듭시다.

예수님은 잔치에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하셨다.(12,13절) 왜 그런가? 가난한 자들은 자기를 부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땅히 보상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청해놓고도 주인이 감사의 답례를 전혀 받지 못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14절)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서 봉사할 때 내가 칭찬들을 만한 장소가 보이면 피해가야 한다. 나를 칭찬할 만한 사람을 만나도 빨리 그 사람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받으면 그 날에 저곳에서 받을 것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남모르게 남의 불행과 가난에 뛰어 들어야 한다. 우리는 늘 남모르게 남의 외로움에 뛰어 들어야 한다. 남모르게 뛰어들어서 조용히 이룬 나의 선행은 하늘의 은행에 차곡 차곡 예금되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남모르게는 커녕 오히려 남이 알도록, 남이 눈치 채도록 일한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찬사와 칭찬을 계산하고 있다. 이런 자는 너무 억울한 자이다. 왜냐하면 실컷 일해 놓고도 그 날에 받을 상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10월1일(목)/누가복음 14:15-24

제목: 천국 잔치의 메뉴

왕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였다. 그런데 받을 산 사람(18절), 소를 사서 일을 시켜야 할 사람(19절), 결혼해서 아내에게 봉사해야 할 사람(20절)은 초청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 저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길거리의 절인들과 장애자들을 초청하였다.(21절) 그랬더니 그들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되었다. 처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 비유는 장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였는가? 이유는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 잔치의 메뉴는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라는 메뉴였다. 유대인은 그런 메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축복, 독립, 정복, 힘(파워)이라는 메뉴를 좋아한다. 이것은 현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본래 성서가 말하는 메뉴는 사랑, 용서, 희생, 겸손, 양보이다. 그러나 사업 잘되고, 돈 많이 벌고, 복 받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성서가 말하는 진짜 메뉴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에 등을 돌린다.

10월2일(금)/누가복음14:25-35

제목: 늘 자아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하며(26절)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며(27절)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33절) 여기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가리킨다.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나 손해를 고난이라 하지 않는다. 고난은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이다.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자이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적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없고 이익 본 것만 있다면 나는 그동안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그 십자가 중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자기 자신’ 이지 않을까? ‘죽기 싫어하는 ‘나’ , ‘지기 싫어하는 나’ , ‘양보하기 싫어하는 나’ , ‘자존심 강한 나’ , 이 ‘나’ 가 나의 가장 큰 십자가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바로 ‘나’ 이다. 이것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 ‘나’ 라는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매순간 그 목을 잘 자르는 자가 참 제자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